한국중공업(주)

5억달러 상당 아랍에미리트 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98년 UAE, '99년 쿠웨이트 등 매년 대형 프로젝트 잇단 수주

한국중공업(사장 尹永錫)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수전력청(Abu Dhabi Water & Electricity Authority, ADWEA)으로부터 5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다.

윤영석 한중 사장은 지난 7월 5일(한국시간 6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황길신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전력청 쉐이크 디얍 빈 자예드 알나얀(Sheikh Dhiyab Bin Zayed Al Nahyan) 회장으로부터 하루 생산량 6250만 갤론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Mirfa Desalination Station 'B')를 일괄도급방식(Turn-key)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발주서(Letter of Award)를 접수했다.

이로써 한중은 '98년 3억 5천만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알따윌라와 '99년 1억 7천만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아즈주르 등 중동지역에서만 총 10억달러 상당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건설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미르파(Mirfa) 지역에 건설되며, 준공될 경우 하루 30여만 톤의 담수를 생산, 매일 60만명 이상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중은 발주서 접수에 따라 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신공법 및 운송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준공할 예정이며, 착공 12개월만에 담수생산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이번 입찰에서 유럽 및 일본 유수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지난 '98년 수주한 바 있는 아랍에미리트 알따윌라(Al-Taweelah) 발전·해수담수화 공장 증설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중 관계자는 또 "발주처인 아랍에미리트 수전력청은 알따윌라 프로젝트에서 한중이 보여준 길이 90m, 폭 30m, 중량 3,500톤의 대형 증발기를 완전조립 상태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최첨단 모듈공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이 사양을 그대로 적용, 발주처의 승인 없이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할 만큼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이번 수주를 통해 해외 담수시장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유값 상승에 따라 다른 중동지역 국가에서 재개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담수화협회(International Desalination Association, IDA)에 따르면 한중은 '79년 국내 기업 최초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산(Farasan)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알쇼아이바(Al-Shoaiba),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제벨알리(Jebell Ali) 및 아부다비의 알따윌라(Al-Taweelah), 쿠웨이트 아주즈르(Az-Zour) 등 대형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90년대 들어 세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에서 25%의 점유율로 세계 제1위의 공급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 쉐이크 디압 빈 자예드 알나얀 회장은 이날 계약식에 동석한 황길신 대사에게 한국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LG산전(주)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주제어반 공급

LG산전(대표 孫基洛 부회장 www.lgis.lg.co.kr)은 최근

2002년 6월에 상업운전 예정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에 주제어반 및 관련 계측기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LG산전이 이번에 공급한 원자력발전소용 주제어반은 LG산전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지난해 말 미국 내진 전문기관인 NTS(National Technical System)社의 내진시험에 합격, 성능을 인정받아 영광 원자력발전소 5호기에도 공급한 바 있다.

원자력 발전소용 주제어반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평상시 시스템 운전자가 발전소의 운전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평상시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비상시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중요 계통, 설비, 원자로 및 핵 장전 등에 대한 감시 제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된 제어 시스템이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용 주제어반은 프랑스 알스톰社, 미국 웨스팅하우스社 등 외국업체 의존도가 높았으나 LG산전이 지난 '97년에 울진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자체 기술로 제작한 시스템을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납품하기 시작, 이번에 영광 원자력발전소에도 자체 기술로 제작한 시스템을 납품함으로써 외국 기술 의존도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자력용 배전반 제작시 관련 기술 적용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대한전선(주)

계열사 대한제작소를 광섬유 생산업체로 집중육성

8월 21, 22일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무상 증자 각 100% 실시

국내 최대 전선업체인 大韓電線(대표 兪彩濬, www.taihan.com)의 계열사 대한제작소가 광섬유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대한제작소는 500억원을 투자, 200만f.km를 생산할 수 있는 광생산설비를 도입 설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전선은 기존 안양공장의 100만f.km를 포함 300만f.km의 광섬유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추가로 대한제작소에 200만f.km를 늘릴 경우 총 500만f.km로 늘어나 국내최대의 광섬유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대한전선은 서울 근교(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대한제작소를 광섬유 생산전문업체로 전환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광섬유를 받아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분리, 전문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폭증하는 국내외 시장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제작소는 지난 6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추진을 위해 회사명을 '옵토매직'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기존 기계설비 제작에서 광섬유 제조판매로 전환키로 의결했으며 7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 설비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오는 8월 21, 22일 양일에 걸쳐 유무상 증자를 각각 100%씩 실시한다.

이 회사가 이처럼 광생산설비 증설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인터넷 등 관련산업의 급성장(인터넷 트래픽 수요 매 6개월마다 2배 이상 신장)으로 광케이블 공급부족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한전선內 광생산설비 증설 추진팀이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일본 스미토모와 생산설비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세부일정을 협의중에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설비는 기술, 생산 효율면에서 세계 최첨단 설비로 현재보다 품질, 경제성이 우수하고 단위시간당 생산성도 두배 이상 증가시킨 VAD 공법의 신설비라고 대한전선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신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대한전선과 대한제작소는 광섬유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게 되어 대폭적인 수지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제작소는 지난 '74년 설립되어 전선, 철강기계 등의 설비와 전선용 포장드럼을 제조 판매하던 대한전선 계열사로 납입자본금 6억 자기자본 100억 공장부지 1만평을 가진 코스닥 등록업체이다. 그 동안 기계사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불투명한 사업전

망으로 인해 지난 '97년 기계사업부문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그동안 전선용 포장드럼 제조와 임대업에 종사해 왔다.

현대중공업(주)

北韓에 디젤발전설비 공급

現代重工業(대표: 趙忠彙)이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추진중인 함경남도 금호지구 북한 원자력발전소용 디젤발전설비를 한국전력을 통하여 공급,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디젤발전설비는 750kW급 3基로, KEDO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KEDO 原電사업을 본격화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됐다.

現代重工業은 이와 함께 南北 經協사업 추진으로 北韓 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工團 설립 등이 활발해지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10만kW~20만kW급 陸上디젤발전설비는 물론, 5만kW급 및 10만kW급의 船上발전소(Barge-mounted Power Plant)까지 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발전설비를 바지선에 실어 가동하는 船上발전소는 北韓 해안지역에 위치한 工團 등 공사현장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火力발전소 1基를 건설하는데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陸上디젤발전소는 15개월, 船上발전소는 12개월의 짧은 工期로 건설할 수 있고, 공사비용 또한 적게 드는 이점이 있어 북한의 특정 工團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現代重工業은 설명했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99년 印度에 세계 최대의 20만kW급 디젤발전소를 건설한 것을 비롯,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인도, 모리셔스, 대만 등 해외에 10여基의 디젤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는 세계 최대 디젤엔진 메이커이다.

국내에도 北濟州 內燃발전소, 롯데잠실열병합발전소, 黑山島발전소 등 6基의 디젤발전소를 건설하여 현재 상업운전중에 있다.

한국전기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연말 완공
전기전자 등 인력장비 지원

한국전기연구소는 창원시 성주동 본소내 600여평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

전기연구소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13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정명식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이종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보육센터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기연구소는 경남도와 창원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건설비 및 운영비 지원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행정지원을 받아 600여평의 연구소 부지에 1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건평 400여평의 창업보육센터를 연말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6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전용사업실 160여평과 교육관 등 240여평에 첨단 설비를 갖춰 유망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기술(주)

美 벡텔사와 200만달러 규모 기술지원 용역 계약

한국전력기술(KOPEC, 사장 박용택)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기술을 미국에 역수출한다.

KOPEC은 최근 설계·건설 전문회사인 미국 벡텔사와 200만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사업은 벡텔사가 미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용역의 일부분으로 KOPEC의 기술진이 직접 참여한다.

박용택 KOPEC 사장은 "우리 나라

대한전기협회, 徐重錫 전무이사 취임

대한전기협회(회장 崔洙秉)는 지난 6월 29일 임시총회에서 徐重錫(58) 前 한국전력공사 기술품질처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했다.

徐重錫 전무이사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와 미국 뉴욕공과대학원 원자력공학과(석사) 및 펜실베니어 주립대학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박사)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실장, 기술정책실장, 본사 기술기획처장, 기술품질처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 전문가이다.

徐重錫 전무이사는 이어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대비한 협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전기업계와 회원에 봉사하는 바람직한 협회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는 과거 원자력 설계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으나 이제 우리가 축적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미국에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며 "이번 계약이 향후 우리 나라가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사장은 "상업 운전중인 원전의 수명연장, 성능 개선, 증기 발생기 교체 등 발전소 준공 후의 운영관리분야에도 KOPEC이 직접 참여키로 해 우리 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OPEC은 지난 해 7월 미국의 스톤 앤드 웹스터(Stone & Webster)사와 대만 룽멘(龍門)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기술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0월 미국서전트 앤드 런디(Sargent & Lundy)사와 미국 디씨쿡(DC Cook)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수화력 분야에서도 지난 해 6월 미국의 번즈 앤드 맥도넬(Burns & Mcdonnel)사와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 미국 캔사스시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미국 레이티온(Raytheon)사로부터 필리핀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의 500kV 변전소 건설공사를 턴키 계약(설계·구매 및 건설 일괄 수행 방식)으로 수주했다.

한전 KDN(주)

소사장제도 도입

한전KDN(대표 정연동 http://www.kdn.com)이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별 성과에 대해 실질적 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했다.

최초 실시되는 대상은 그룹웨어 사업 부문으로 이 경우 소사장(시스템사업팀 이 경우 차장)을 포함해 총 7명이 「파워 솔루션」 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다.

이 조직은 앞으로 사내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며 예산집행과 인사운영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또 회사는 이 사업부의 목표수익 초과액 30%를 조직구성의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무역진흥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 다른 공기업이 목표수익 초과액의 5~20%만을 소사장 조직의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그러나 영업 과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회사는 소사장 조직이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 사장평가, 기술교육 등 사업실적 평가에서 저조할 경우 현재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사장제를 도입한 파워솔루션팀은 인터넷 기반에서 전자결재, 게시판, 메시징 등을 운영하는 「파워넷」 그룹웨어 솔루션을 앞세워 올 하반기에만 52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